

아파트는 미래다

강재호

아파트는 현대 도시 생활의 전형적인 공간의 하나다. 아파트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곧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질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70%는 도시에서 거주할 예정이며, 한국의 도시화는 86%에 이를 것이다. 도시적 삶과 생활의 주요 형식으로서의 아파트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몸과 마음, 생각과 공간의 상호작용의 근원과 그 변동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아파트의 미래를 상상하는 작업은 현대 도시 생활의 ‘원형’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미래는 과거에 맞닿아 있고 지금 여기에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베를린과 파리를 중심으로 도시 문화를 탐구했던 비평가 발터 벤야민(1892-1940)은 현대 도시 공간과 생활의 원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벤야민은 파리를 ‘19세기의 수도’라 부르며 여섯 가지 주제로 탐험했다. 이 주제들을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아파트의 미래를 상상해 보려 한다.

주요 내용

- 아케이드: 유토피아로서의 아파트
- 파노라마: 스펙타클로서의 아파트
- 세계 박람회: 이벤트로서의 아파트
- 인테리어: 정상가족을 위한 아파트
- 길: 흐름으로서의 아파트
- 공동체: 도시로서의 아파트

프랑스 혁명 이후 파리의 도시공간에 급속히 등장한 아케이드에서 벤야민은 현대성의 공간적 원형을 보았다. 철근과 유리로 만들어진 아케이드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없어지고, 실내의 가스등 사용 등으로 낮과 밤의 경계 역시 흐려진다. 개인과 집단,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관계도 도전 받는다. 아케이드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인 샤를 푸리에의 집단주거에 대한 계획, 팔렌스테리의 자본주의적 재현이다. 착취 없는 조화로운 집단적 삶을 상상한 푸리에에 이 집합적 주거 공간을 통해 인간의 열 두가지 정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꿈을 그렸다.

강재호

케임브리지대학 미디어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연구소의 홀볼트 재단 연구원, The New School(뉴욕)의 미디어 연구와 영화학과 교수, 런던 대학교 SOAS의 비판 미디어와 문화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발터 벤야민과 미디어』(Walter Benjamin and the Media: The Spectacle of Modernity)가 있다.

이 유토피아의 이상은 벤야민과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도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디자인하려는 르 코르뷔지에의 미래주의적 상상력을 촉발한다. 1922년, 당시의 주도적 공업모델인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의 체계적 분업화 정신을 찬양하며, 그는 콘크리트를 더한 새로운 건축재료와 신공법을 이용한 60층짜리 초고층 건물들의 집합체인 ‘현대 도시’ (Ville contemporaine)를 설계한다. 마르세유의 위니테 다비타시옹 아파트에서 보여지듯 푸리에의 수평적 공동체로 상상된 아파트는 르 코르뷔지에에서 수직적 공동체로 재현된다.

한편 1967년 서울, 김수근의 설계로 종로와 명동을 이으며 들어서기 시작한 상가아파트 세운상가는 현대를 관통하는 모더니즘적 이상의 한 형태이며 이후 서울에서 등장하는 미래 아파트의 원형으로 표상된다.

강연에서는 각 주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 영상자료를 함께 보여 줄 예정이다.

_ 문경원과 전준호, <축지법과 비행술> (2015),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출품작

_ 토레 다비드 (Torre David), 카라카스, 베네주엘라

_ 폰테 시티 아파트먼트 (Ponte City Apartments),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_ <빈집> (김기덕, 2004)

_ <플란다스의 개> (봉준호, 2000)

_ <Cloud Atlas> (The Wachowskis and Tom Tykwer, 2012)

_ <Florida Project> (Sean Baker, 2017)

아파트의 미래는 오늘날 한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시공간 속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푸리에가 고안한 팔랑스테르, 요하네스버그의 폰테 시티, 카라카스의 토레 다비드 등은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미래다.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주거공간을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일시

2019년 6월 24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